

<2013.08.16~2013.08.19.>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기념 축하음악회 개최

페이지 1 / 1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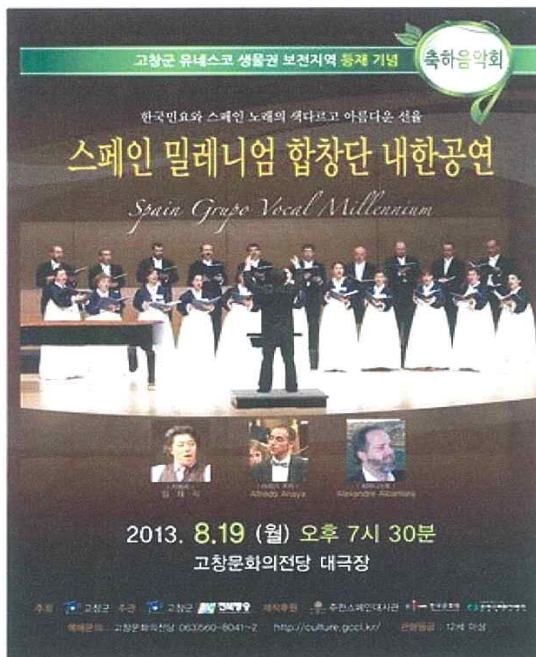
×

[지역]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기념 축하음악회 개최

기사입력 2013.08.16 11:33 최종수정 2013.08.16 11:33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19일 고창문화의전당 공연"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 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고창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영 라디오 TV방송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의 지휘로 La Verbena de la Paloma와 El Barberillo de Lavapies,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등 스페인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지휘자 임재식은 비아 마드리드 및 스페인 오르페온 필하모닉 마헤릿 상 임지휘자를 역임했고, 이사벨 카톨릭 여왕 스페인 문화 훈장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오케스트라 까마라 밀레니엄 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스페인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노래를 선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페인 정통의 사르수엘라와 우리 노래, 그리고 다양한 번안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통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노래를 유럽 최고의 하모니를 통해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새만금일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기념 축하음악회

오늘 고창문화의 전당, 임재식 지휘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공연이 19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스페인 국영 라디오 TV방송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의 지휘로 La Verbena de la Paloma와 El Barberillo de Lavapiés,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등 스페인 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지휘자 임재식은 비아 마드리드 및 스페인 오르페온 필하모닉 마헤릿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이사벨 카톨릭 여왕 스페인 문화 훈장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오케스트라 까마라 밀레니엄 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스페인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노래를 선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페인 정통의 사르수엘라와 우리 노래, 그리고 다양한 번안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통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노래를 유럽 최고의 하모니를 통해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 라 매 일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

오늘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 공연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이 19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영 라디오 TV방송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의 지휘로 La Verbena de la Paloma 와 El Barberillo de Lavapies,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등 스페인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지휘자 임재식은 비아 마드리드 및 스페인 오르페온 필하모니 마헤릿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이사벨 카톨릭 여왕 스페인 문화 훈장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오케스트라 까마라 밀레니엄 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스페인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노래를 선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페인 정통의 사르수엘라와 우리 노래, 그리고 다양한 번안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통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노래를 유럽 최고의 하모니를 통해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고창서 19일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기사등록 일시 : [2013-08-17 10:28:24]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기념 축하음악회

한국민요와 스페인 노래의 색다르고 아름다운 선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Spain Grupo Vocal Millennium



지휘자 | 임재식 | 타자기 주자 | Alfredo Anaya | 코아다스트 | Alexandre Alcantara

2013. 8.19 (월)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

주최 :  고창군 주관 :  고창군  전북방송 제작후원 :  주한스페인대사관

예매문의 : 고창문화의전당 063)560-8041~2 <http://culture.gocl.kr/> 관람등급 : 12세 이상

NEWSis ()

【고창=뉴시스】김종호 기자 = 전북 고창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이 19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고 17일 밝혔다.

스페인 국영 라디오 TV방송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씨의 지휘로 'La Verbena de la Paloma'와 'El Barberillo de Lavapies' 등 스페인 정통 사르수엘라(zarzuela)]를 선보인다.

또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등 우리나라의 민요와 가곡도 들려줄 예정이다.

seun6685@newsis.com